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3. 담임목사 안식월

담임목사 가정이 한국에서 안식월을 갖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4. 청소년부예배

청소년부 예배는 한달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5. 예배뒷정리를 함께 도와주십시오

교회 사용 후 뒷정리를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지난 주 (7/2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83.93



함께하는교회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하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6:16-2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물 위를 걸어서	정요찬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정요찬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8월 4일	8월 11일
김주연	전주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눈물로 씻은 발
본문 : 눅7:37-50

설교자로서 힘든 점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음에도 모두가 복음을 받아 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뛰어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행동을 받아 들이는 모습에 마음으로 불편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두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복음 앞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아낌 없이 드려 은혜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은 냉랭할때로 냉랭하여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녀가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은혜로서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입니다. 그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전 생애를 갈아넣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유대인의 모함과 음모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성막으로 질질 끌고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바울이 한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볼생각을 하지 않고 즉시로 다시 조금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갈아넣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살았던 바울과, 죄 많은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진정한 회개와, 그로 인해, 거저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